

사 회

■ 르포 - 휴일 오후 무등산 증심사 입구가 보니 ...

폭 6m 도로 사람·차 엉켜 '난장판'

입·출구 한 개 뿐 ... 200m 거리 30분 넘게 걸려

등산객들 "차량 통제 하든지 길 넓히든지 해야"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상가 주변은 주말과 휴일이면 아수라장으로 탈바꿈 한다. 폭 6m의 유일한 진출입로에 수많은 차량이 오가고 상가 손님 등산객까지 뒤엉켜 휴식처가 아닌 '짜증 구간'으로 변한다.

휴일인 28일 오후 2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식당가로 향하는 6m의 도로는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과 탐방객들이 서로 엉켜버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차량 통제도 없어 상가 입구

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차량 운전자들은 200m 도로를 지나기 위해 30분 넘게 전·후진을 반복해야 했고, 겨우 출입로에 진입해도 한꺼번에 밀려든 탐방객들을 피하기 위해 경보음을 울리기 일췌였다. 거의 땅을막막락하며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일도 종종 발생했고,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경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출입구가 하나인 식당가로 들어가기려는 차량 수십대가 불법 주차차량과 뒤엉키는 바람에 이곳을 지나

는 상인들도 교통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16일 광주시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고 22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식당가로 들어온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로가 하나 더 설치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주말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점심시간이면 교통정체가 심해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도시공사와 시 관계자들은 어렵다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처음 집단시설지구를 계획할 당시 이런 설계가 아니었다. 외부차량도 들어보내지 말자고 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도로 폭을 줄이고 상가주차장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공원주차장은 30분에 400원 하는 유료주차장인데 상가에서 800m 가량 떨어져 있어 불편하기 때문이다. 또 식사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며 집단시설지구로 들어서는 방문객들은 식당 앞 주차장이나 도로에 무료로 주차하기 위해 차량끼리 꼬리를 잇는 바람에 북새통이 계속 된다.

매주 무등산을 찾는 박모(여·64·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는 "길도 좁은데 상가 안까지 왜 차량이 들어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차량 통제를 하든지 길을 넓히든지 하라"고 말했다.

집단시설 지구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운림동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식당가로 향하는 폭 6m의 비좁은 도로는 진출입 차량과 탐방객들이 서로 엉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유흥주점·모텔 등 화재 땀 대형참사 우려

169곳 소방법 위반 적발

불법 건축과 업종변경 및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미비한 유흥주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산구 우산동 유흥주점 화재와 관련해 유흥주점·단란주점·속박시설 등 172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 위반 사범 169개소(341건)를 적발했다.

적발된 341건 중 비상벨 작동 불량 및 비상구 관리 규정 미준수 등 '소방시설 불량'이 33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불법건축 및 업종변경'은 3건이었다.

광주소방본부는 불량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내렸으며, 불법건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다중이용시설 관할 자치구에 통보했다.

소방본부는 특별점검과 함께 업주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시 대피 유도방법과 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지난 26일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등 관련 협회 관계자들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노래방이나 PC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항상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면서 "업주 역시 자신의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를 열어두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광주지역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최근 3년간 총 131건의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인명피해와 3억70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공사장 안전·교통사고·자살 잇따라

주말과 휴일을 전후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공사장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자살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8일 오전 6시30분께 여주시 월하동에서 오토바이와 덤프트럭이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65)씨가 숨졌다. 경찰은 승진 박씨가 앞서 가던 덤프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3시께 진도군 근내면 녹진리 진도대교에서 1t 화물차 2대가 정면 충돌했다. 이어 뒤따라오던 또 다른 1t 화물차가 사고로 멈춰서 있던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 이모(46)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께에는 광주

북구 중흥동 한 아파트 1층 화단에서 광주 D역중 1년 김모(13)양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양이 평소 체질 문제로 푸지함을 자주 들었다는 친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25일 오후 4시께에는 여주시 월내동 여천산단 내 호남화력 발전소에서 고정식크레인 수리 작업을 하던 박모(41)씨가 1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박씨는 12m 높이의 고정식크레인에 올라가 수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박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park@

담양 규모 2.3 지진

전남을 4번째 ... 피해 없어

28일 오전 10시15분 담양군 남쪽 16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 규모는 예민한 사람이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남에서 발생한 지진은 4회다. 지난 4월12일 신안군 흑산면 남남동쪽 61km 해역에서 2.2 규모의 지진이 나타났으며, 4월13일 신안군 흑산면 남쪽 70km 해역과 10월25일 고흥군 남남동쪽 37km에서 2.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편, 기상청 지진감시과에 따르면 전남 지역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60건의 지진이 발생, 최대 발생지경 북 지역 101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진이 많다.

/양승훈기자 yang@kwangju.co.kr

'청년 변호사' 연 평균 3700만원 번다

광주 변호사 수입 1인당 139.1건 전국 최대

진도 등 83개 시군구 변호사 없는 '무변촌'

광주지역 변호사의 수입사건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변호사의 1인당 수입사건 수는 연간 65.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시가 1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4.4건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서울은 제주(59.6건)보다도 수입 건수가 적을 정도로 경쟁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년차 또는 나이 40세 이하에 해당하는 이른바 '청년 변호사'가 한해 벌어들이는 순수소득은 평균 3700만원대, 매출은 9400만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펴낸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 따르면 전국의 청년 변호사 10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과 사건 수입액, 수입경로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 변호사단체가

스스로 수입을 조사·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지금도 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과 검찰청이 밀집한 서울 서초구는 전체 변호사의 31%가 등록돼 공급 과잉인 반면 진도군 등 83개 시군구는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無辯村)'이다.

한편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5178명으로 일본의 4413명, 미국 260명, 영국 420명, 프랑스 1천 273명, 독일 537명 등 선진국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 내달 경기 여주에 개소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내달 1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법무부가 28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들어선 소망교도소는 방사형 모양의 수용사동과 강당·사역공장 등을 갖춘 부속동, 비상대기소 등 6개 건물로 이뤄졌으며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소망교도소는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전과 2범 이하의 20~60세 성인 남성 수형자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수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파트 뇌물' 의혹 해남 부군수 구속

광주지검은 27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허영철 해남군 부군수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강요인 판사는 이날 실질심사에서 허 부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군수는 지난해 건설업자 김모(47)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일부를 대납하도록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부군수는 김씨와 자신의 역대 아파트 구입 대금을 대납해 달라는 약정서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다. 허 부군수 측은 개인 채무에 의한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홍보기사 써주고 100만원 사이비 기자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형렬)는 28일 지방선거 후보를 위해 기획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성지역 모 인터넷 실질심사에서 허 부군수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발행인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께 장성군의원 후보에게 기획기사 보도, ARS 전화 홍보 등을 통해 지지도를 올려 주겠다고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중순께 또 다른 군의원 후보를 위한 기사를 써주고 후보가 요청하지도 않은 광고를 실어서 같은 달 말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치킨만 먹어라" 말에 종업원 폭행

○...술에 취해 치킨집을 찾은 20대 2명이 '신분증 없으면 술은 제외하고, 치킨만 드실 수 있다'고 말한 종업원을 폭행해 나란히 경찰서행.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1)씨 등 2명은 이날 새벽 2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윤모(23)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김씨 등은 이날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치킨에 맥주를 마시기 위해 치킨집을 찾아가다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없어 술을 팔 수 없다"는 종업원 윤씨의 말을 듣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은 경찰에서 "치킨만 먹어라"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